



두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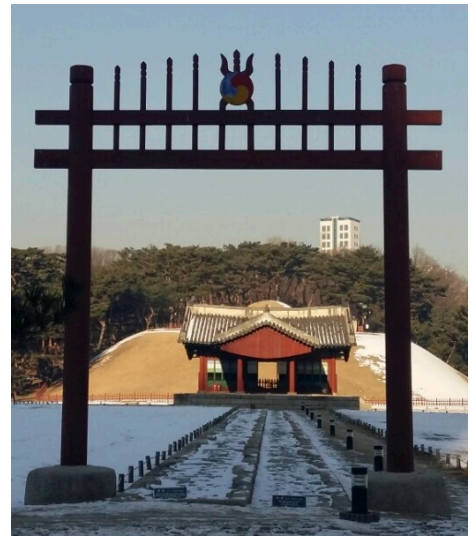
왕들의 정원 조선왕릉이야기



강남구 삼성동 2호선 선릉역과 9호선 선정릉역 사이에 선릉과 정릉이 있습니다. 선릉은 조선시대 9번째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인 정현왕후의 무덤이고, 정릉은 그들의 아들인 11대 왕 중종의 무덤을 말합니다. 7만3천여 평의 넓은 면적에 울창한 숲이 보전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도심 속에 살아 있는 역사 공간으로, 또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그 가치를 빛내고 있습니다. 오늘 도심 속 역사의 숲을 산책하면서 왕들의 삶과 죽음을 돌아보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묵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왕가의 무덤은 신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 됩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고 합니다. 세자나 세자빈의 무덤은 ‘원’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효창공원은 원래 ‘효창원’ 이었습니다. 정조의 맏아들인 문효세자의 무덤이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고양시로 이장 되면서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타 왕가의 무덤은 일반인의 무덤과 같이 ‘묘’라고 합니다. 상도동 BEE 선교센터에서 상도터널을 지나가면, 도로명이 양녕로입니다. 세종대왕의 큰 형인 양녕대군의 묘가 그 곳에 있습니다. 연산군이나 광해군처럼 폐위된 왕의 무덤도 ‘묘’입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은 42기가 있습니다. 2기는 개성에 있고 40기가 서울 시내와 근교에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조선왕릉 40기가 지난 2009년에 한꺼번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한 왕조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 전부 다 온전하게 남아서 한 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조선 왕릉이 유일합니다. 조선 왕릉은 조성 원칙 중에서 거리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한양도성에서 100리가 넘지 않는 곳에 능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루에 달을 수 있는 곳에 능을 만들어서 왕이 능에 행차하는데 편하게 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릉은 대부분 서울 근교 40Km~50Km에 위치합니다. 넓은 능력을 확보하고, 능역 내 수목 관리를 엄하게 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종은 13세에 즉위하여 38세 까지 25년간 재위하면서 조선 왕조의 틀을 완성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의 기본이 되는 법을 완성하였고, 국조오례의를 완성하여 유교적인 통치 질서를 세웠습니다. 사후에 지어진 그의 이름이 성종(成宗)인 것은 그가 조선 왕조의 기초를 완성한 업적이 있다 하여서 ‘이를 성(成)’자를 쓴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통치영역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그였지만, 가정적으로는 그리 행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공혜왕후는 후사 없이 일찍 죽었고, 둘째 부인이 그 유명한 폐비 윤씨입니다. 연산군의 어머니지요. 윤씨가 투기로 인하여 폐출된 후 세 번째 부인이 여기에 묻혀있는 정현왕후입니다. 11대 중종의 어머니입니다. 성종은 두 왕비와 10명의 후궁 사이에서 28남매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연산군이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종의 가장 큰 실정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이 후계자가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조짐들이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은 성종의 큰 실수였습니다. 자식을 바르게 징계하지 못하고 자식들 주변의 우려할 만한 상황들을 개선하지 못했을 때, 닥치는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도 익히 들어왔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동서고금 어느 역사에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이며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중종은 연산군 때의 폐정을 수습하고, 국가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흥(中興)의 기틀을 만들었다 하여 왕의 이름을 중종(中宗)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이름과 능의 이름은 왕이 죽은 다음에 신하들에 의해서 지어 집니다. 왕이 승하하면 종2품이니까 지금의 차관급 이상의 대신들이 모여서 왕의 이름과 능의 이름을 짓습니다. 앞글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조(祖)와 종(宗)이 들어가는 왕의 이름을 묘호(廟號)라고 하는데, 종묘에 신주를 올릴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그 왕의 왕으로서의 업적을 평가해서 짓습니다. 능의 이름은 그 왕의 살아온 일생의 모습이나 품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선릉(宣陵)의 ‘선(宣)’자는 ‘베풀 선’자입니다. 성종 때가 조선 오백년을 통해서 가장 풍요로웠을 때입니다. 세종 때보다도 생산이 더 많았습니

다. 무엇보다도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성종 말년에는 풍요가 지나쳐서 사치와 향락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평안한 덕을 펼치는 정치를 하였다 해서 능호에 ‘베풀 선’자를 쓴 것입니다. 왕의 이름과 능의 이름 안에는 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교적인 상례의 전통이 시작된 것은 고려 말 도입된 주자가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유교적인

전통 상례의 핵심은 3년 상에 있습니다. 왕의 상례인 국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상의 시작은 왕이 죽기 직전 유언하는 고명(顧命)에서 시작되어 27개월째 왕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부모의(祔廟儀)까지 70여 단계의 의례를 거칩니다. 이 절차 중에는 현재 일반 사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의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의례를 행하는 의미를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버려야 할 의례나 절차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의례를 보면 조선 시대 유교적인 죽음의 의미와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들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의 죽음은 혼(魂)과 백(魄)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은 정신이고 백은 몸입니다. 몸에서 분리된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魂飛-혼비) 남은 시신은 땅에서 흩어진다(魄散-백산)고 하였습니다. 혼비백산(魂飛魄散)의 어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욕할 때 흔히 쓰는 ‘혼 낸다’는 말을 함부로 쓸 일이 아닙니다. 죽인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한 지역의 오랜 전통과 관습 속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언어 속에는 문화와 의식이 잠재되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를 잘 새기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몸에서 떠난 혼 중에서 세상에 원한과 미련이 없이 아주 좋은 상태로 떠난 혼은 신명(信明)이라는 귀신이 되어 북쪽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즐거울 때 ‘신명 난다’는 표현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지금도 장례 시 시신이 담긴 관 아래에 북두칠성을 형상화하는 일곱 개의 구멍이 뚫린 칠성판을 까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왕과 왕비의 장례는 대개가 5 개월 장입니다. 봉분과 능역을 조성하는데 5 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신은 궁에 보관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설빙(設氷)을 합니다. 얼음으로 빙실을 만들어서 시신을 보관하지요. 얼음은 얼음 창고에서 조달합니다. 대표적인 얼음 창고가 서빙고와 동빙고가 있었지요. 유교적인 상례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몸에서 떠난 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백(魄-몸)은 실제로서 땅에 있으니 문제가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혼(魂-정신)을 어떻게 모시는가의 고민이, 혼의 존재를 신주(神主)로 형상화 했습니다. 신주는 혼이 담긴 그릇입니다. 조상의 혼이 담긴 그릇이니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었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종묘에 있는 역대 왕들의 신주입니다. 귀한 것을 다룰 때 ‘신주 단지 모시듯 한다’는 표현의 유래입니다. 제사 때 제상 앞에 세우는 위패가 그것입니다. 종이로 지방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왕의 시신을 땅에 묻는 장례를 지내고 돌아올 때 신주를 만듭니다. 나무로 된 직육면체 통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던 혼이 제사 때 내려와 있는 곳입니다. 장례나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는 것은 그 혼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간혹 성도들의 빈소에 향을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피해야 할 의식입니다. 장례 후 궁에 돌아와서 신주를 놓고 제사 지내는 의례가 우제(虞祭)입니다. 몸을 떠나 근심하는 혼을 위로하는 제사입니다. 신분에 따라 왕은 칠우제를 지내고, 일반인은 세 번의 우제를 지냅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삼우제가 그것입니다. 삼우제의 본래 의미로 보면 비성경적이지만 장례 후 다시 묘소를 찾아서 완성된 묘소를 살펴본다는 의미로는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왕이 죽은 후 27개월이 지나면 궁에 모셔놓고 제사 지내던 신주를 종묘에 옮깁니다. 종로4가에 있는 종묘에 가면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신주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주는 밤나무로 만드는데 높이가 27Cm, 가로 세로 각 12Cm의 직육면체 통입니다. 혼이 드나들 수 있도록 전후좌우상하로 6개의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이 구멍이 ‘혼구멍’입니다. ‘혼낸다’는 말과 함께 ‘혼구멍낸다’는 말도 조심해서 써야 할 말입니다. 왕의 신주를 종묘에 옮겨 제사지내는 부모의(祔廟儀)가 왕의 3년 상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유교적인 상례의 핵심은 3년 상에 있습니다. 이 삼년상에는 유교적인 효(孝)의 정신이 있습니다. 상례를 굳이 삼년 상으로 한 것은,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떼고, 땅에 발을 디디고 혼자 걸을 수 있는 때가 최소한 3년은 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 세상에 적응하여 잘 살도록 부모가 보살펴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부모의 혼이 몸을 떠나 저승으로 갔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할까 염려되어, 자식들이 부모의 혼이 저승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지켜드린다는 의미에서의 3년 상입니다. 사후 세계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임을 아는 우리는 이 삼년 상의 의미를 부모가 돌아가신 후 3년이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 3년을 더욱 정성껏 돌봐드리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은 유교입니다. 궁궐의 건축에도 유교경전의 원리와 사상이 철저히 담겨있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종묘(宗廟)를 세워서 조상신을 섬기고, 우측에는 사직단(社稷壇)을 세워서 땅과 곡식을 주관하는 자연신을 섬겼습니다. 종묘사직(宗廟社稷)은 조선왕의 정통성의 근거입니다. 조선왕은 조상신과 자연신으로부터 그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종묘사직은 왕실이며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완고한 유교적인 전통을 깨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의 노고를 호남 성지 순례

에서 보았습니다. 특히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정약종의 아들이며 정약용의 조카인 정하상은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하면서 작성한 상재상서(上宰上書)에서 이러한 유교적인 상례에 대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부당함을 지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항상 역사를 상고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역사의 숲을 산책하면서 보이는 나뭇가지 하나, 차이는 돌부리 하나에도 필연적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봅니다. (글,사진:김천봉, 편집:이경주)

BEE 소식

- 2.25일 토요일기도모임 후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이 불가능하신 분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6일부터 온비아가 개강합니다. 기도와 홍보 부탁드립니다.